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 이다” (역대상 29:14)

추수감사절의 감사 thanks 라는 단어에는 ‘gratitude’ 와 ‘thanksgiving’ 두 가지 의미가 있다. gratitude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thanksgiving은 "깨닫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뜻하며, 각각의 어원은 '은혜'를 뜻하는 "grace", '생각하다'의 뜻인 "think"에 있다.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드리 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기대한다.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가을이 온 것을 실감하는 요즈음입니다.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합니다.
평안 하시지요?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정신 여고의 교사로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뵈고 말씀드릴 수 없어 죄송하지만 주님의교회 장학위원회와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적우수 장학금도 주시고 또 2학기에는 교내장학금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다 감사의 글을 드려야하는데……. 학생에게는 주신 분들의 마음을 알려주고 나중에 너희들이 받은 사랑을 이어가야한다고 말을 합니다.
교우님들께 학생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정신학 원안에서, 주님의교회와 더불어 협력하여 복을 이루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칭찬받을 열매들이 많기를 기도드립니다.

— 2011. 9. 30 정신여고 상담실에서

편지 1 _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정신여고 1학년 학생입니다. 저를 장학생으로 선발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공부에 대한 걱정, 친구 걱정, 또 내가 상급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등등... 학비에 대한 걱정도 그 중 하나였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니 마음 편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학교 생활과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지 2 _ 커다란 마음을 담아...

저는 정신여고 1학년 학생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살림으로 학비의 부담감으로 힘들어 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너무 죄송하고 힘들었습니다. 달라진 집안환경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정신여고에 와서 많은 혜택으로 방과 후 학교 경비도 지원을 받아 방학 때 학교에 나와 공부도 하고 수학 여행비도 지원을 받아 즐겁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부모 가정이라 약간 창피하고 그래서 숨기려 하고, 지원받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말 못하시고 묵묵히 저와 동생을 아껴주시고 힘써 주시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철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여고에도 저와 같은 처지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주님의교회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드나들며 뵈는 주님의교회 교우님께 커다란 마음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이 감사의 보답은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지 3 _ 저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정신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인 꿈 많은 학생입니다.
조금 힘들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가난이 불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값진 성공과 그 과정이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늦둥이에 외동딸이라 부모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가 대학생이 되면 부모님은 60대 후반이셔서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기도를 드린 적도 있답니다. ‘나처럼 이렇게 사소한 아이를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냐?’ 하고. 공부도 못하고 신체적으로 이상하고, 잘못만 하는 딸을 왜 항상 사랑해주고 아끼는지 느끼는 마음의 반은 죄책감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주는 사랑은 너무 크고 순수하지만 저는 그 만큼의 행복, 웃음을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답은 바뀔 수도 있고 정확하지도 않고 그냥 선택하고 답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으로도 행복이라는 감정을 나누는 것 같아요. 저는 비밀이 많아서 누군가에게 잘 말하지 않는데 갑자기 한 번에 말하게 되네요. 꿈도 비밀이고 부모님도 잘 모르시고 몇 명의 친구만 알고 있어요. 사회의 선입견으로 점점 위축되고 있었는데 이 편지로 마음이 편하고 시원합니다.
친구들도 바쁘고 부모님도 하루 일로 지치고 오빠 언니가 있는 것도 아니니 비밀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감사 편지를 쓰며 속에 담았던 생각을 쓰니 혼자 웃음이 납니다. 저의 꿈을 이루는 날 저도 많은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주님의 교우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혜는 우리가 자신의 무능력에 부딪혔을 때에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잘못이 낱알이 드러났을 때에만 깨달을 수 있고, 소망은 우리가 자신의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했을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 분회퍼 / 옥중서간 中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눌 때 그 의미가 완성 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수련회 개최



지난 10월 8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4부 찬양대인 임마누엘 찬양대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십자수 기도원에서 40여 명의 성가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을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배현

성 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고, 지휘자인 권덕원 집사님의 찬양의 의미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점심식사 후 독학으로 발성의 새로운 경지를 터득한 테너 이후광 집사님의 발성법에 대한 강의에 이어 조별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대원들은 오랜만에 유익한 강의를 듣고, 마음껏 대화를 나누었으며 십자수 기도원의 호젓한 분위기와 추수를 앞둔 황금벌판의 풍요로움까지 만끽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 신형섭 기자 noel109@hanmail.net >

우리들은 하나_장애인 가을 야외 예배에서



물기를 거두면 세상은 참 보송보송한데 가끔은 습한 무엇으로 인해 곰팡이도 피고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다. 10월의 하늘은 높고 상쾌하다. 우리에게 내려준

하늘의 축복인 가을, 상념(想念)은 빼알간 단풍처럼 물들고 마음은 해 맑은 밖으로 나가고 싶고 꾸는 꿈에서도 꽃이 피어난다. 10월 8일 토요일 장애인부 가을 성지 탐방 야외 예배를 다녀왔다. 이른 아침에 떠나는 버스 안은 참 바쁘다. 지체 장애인과 청각 장애인들이 함께 떠나는 교회 앞마당은 휠체어가 리프트에 올라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가서 자리에 앉느라 분주하다. 2대의 버스에 72명의 모두들, 봉사자와 함께 해미 순교자 성지와 몽산포 해수욕장과 꽃지 해수욕장의 나들이 즐거움에 가득하다. 담임목사님 감사기도로 출발한다. 길가에 느티나무와 여러 나무들 옷을 갈아입고 달리는 버스에서 바라보는 들녘은 노란 황금물결이다. 해미성당에 도착 하여 천주교 순교자 성지를 돌아보고 몽산포 해수욕장으로 향하였다. 딱딱한 해변가를 구르는 휠체어의 모습과 휠체어를 미는 봉사자들 모습은 가을의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닷물에 어울려 하나의 작은 사랑의 하모니를 이룬다. 사랑의 마음, 사랑(愛)은 단 두 글자이지만 이 순간은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즐거워하는 모습들, 마알간 가을 하늘 아래에 서있는 우리들 쓸쓸하지도 외롭지도 않은 가을이다. 모처럼의 나들이 두 번째 바닷가 꽃지 해수욕장의 노을을 바라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한 공동체 일몰의 바닷가에 서서 붉은 빛의 하늘 아래에서 생각에 잠겨본다. “하늘과 나...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인들 우리는 정다운 둘이라 말해본다. 함께한 사랑, 가슴 속 빈 곳 채우고 행복으로 꽉 찬 하루였다.” < 신형섭 기자 noel109@hanmail.net >

교회소식 이모저모

군경선교팀 송파경찰서 전경 위문



경찰의 날(10.21)을 맞이하여 송파경찰서 경목실 위문과 함께 유기영 목사님과 1-1겨자씨(엘림) 식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과 '청년이 제복 입으면 군인(경찰)이요 복무를 마치고 제복을 벗으면 청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끌어 나가며, 중간세대로서 성인과 어린이들의 교량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군, 경찰 선교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기를 기원한다. < 군경선교팀장 전선재 집사 >

안수집사회 가을 모임



안수집사회 가을야외 모임이 10월 3일(월) 남한산성에서 열렸다. 부부동반으로 94명이 모여 원색의 단풍과 맑은 공기를 맞으며 성벽을 따라 걸었다. 함께 모이기 쉽지않은 시간 서로 인사를 하며 결실의 계절에 체력 증진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섬김과 나눔(사) 소식

행사 1. (어르신 공경하여 행복세상 만들기)

2011. 9. 29 (목) 오전 300여명의 거여동 경로당 어르신들을 (거여2동 13개 경로당, 거여1동 5개 경로당)초청하여 점심과 간식을 드리며 흥겨운 음악과 4톤 분량의 농산물을 각 경로당에 나누어 드렸다.

행사 2. (송파구 다문화가정센터 알뜰장터)

2011년 9월 2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마천2동에 위치한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사) 섬김과나눔(주님의교회)가 후원하여 알뜰장터가 열렸다. 송파구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는 2011. 7. 1부터 송파구로부터 (사) 섬김과나눔(주님의교회)에서 위탁경영하고 있다.

성경필독 시상

주님의교회 성도들중에서 성경쓰기와 홈페이지 성경타자에 참여하고 계신분들에게 시상하고자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팀장에게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분야: 홈페이지 성경타자 / 시상: 상장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분야: 성경필사 / 시상: 상장교부와 필사하신 성경노트를 제본해드립니다

문의: 팀장 정영숙권사 010-3210-2435 (0sook2425@hanmail.net)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秋收(추수)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 10장 5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은 적으니. (마태복음 9장 37절)

10월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豐乞(풍걸: 풍년거지)이라는 말이 있으니 『풍년에는 거지도 얻어먹는 일이 한결 쉽다』는 뜻이다.

秋收(추수, harvest): 익은 곡식을 수확하는 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4~5월경에 이른 보리와 밀을, 5~6월경에 보리를, 7~8월경에 포도와 올리브 그리고 무화과를 수확하였다. 성경에서는 추수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심판,

상급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秋收를 漢字로 破字해보자.

★秋(가을 추): “곡식”의 대명사인 禾(벼 화)에 “뜨거움”의 상징인 火(불 화)를 결합시켜 『벼가 따가운 햇볕에 익어가는 계절이 가을이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收(거둘 수): “형클어지다”라는 뜻을 지닌 収(엮힐 구)에 “애쓰다, 힘쓰다”의 뜻을 지닌 攴(칠 북, 변형체는 攴 등 글월 문 방)의 합자로서 『형클어진 곡식다 밭이나 이삭을 애써 거두어 들인다』라는 의미가 된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오늘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_ 히 10 : 24 - 25

통 권 제 291호
발행인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2011년 10월 16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

공동체는 주님 주신 소명의 공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만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따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공동체는 무엇이며, 주님의교회에서 공동체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편집자 주



교회는 본질적으로 코이노니아 공동체

“교회가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요, 성도간에 책임을 지고 섬기는 복음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0월 둘째 주 겨자씨 모임 자료에 수록된 글이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주님의교회 비전은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이며, 가치에는 “우리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가 들어가 있다. ‘공동체’야말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에 쫓기고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선택이 가능한 또 하나의 세상 정도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주님의교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겨자씨 활동에 참여하는 교인이 열 명 중 세 명에 지나지 않음은 무슨 까닭일까? “현대교회가 우리 시대의 문화를 개혁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화에 종속된 까닭은 인간의 지나친 개인주의 때문이다. 개인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며, 그러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현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공동체 사역의 모델이라고 불리는 세이비어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온 고든 코스비 목사의 말이다.

공동체의 모델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델은 초대교회이다. 성령을 함께 받고, 떡을 같이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주님께 언약을 받은 언약 공동체이자, 신앙 공동체였으며, 가족 공동체이자 생활 공동체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 있고 불완전한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니 갈등과 문제가 없을 리 없다. 따라서 흔히 공동체 안의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기피한다. 사역을 할 때에도 여럿이 같이 하

는 일보다 개인적으로 봉사하는 일을 선호한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번거롭고 피곤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겸손과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공동체는 바로 이것을 이루는 공간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잠 3:5-6)는 말씀은,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일을 함을 뜻한다. 주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주님의 삶을 살도록 명령했고, 공동체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길 원했다. 곧, 교회 공동체에서 지역 공동체로, 더 나아가 온 세계를 주님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대전덕 신부가 태백의 골짜기에 설립한 예수원은, 오직 기도와 침묵과 노동으로 생활을 함께 하는 초대교회의 모형을 잘 보여 준다.

겨자씨는 교회 공동체의 기초 단위

“현재 주님의교회는 9개 교구와 238 겨자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교인의 약 30% 정도만 겨자씨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그룹 전도를 맡고 있는 조정현 목사의 말이다. 주님의교회와 규모가 유사한 다른 대형 교회의 20%~25% 수준에 비하면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수치도 아니다. 지구촌교회나 사랑의교회의 경우, 절반이 훨씬 넘는 교인이 소그룹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겨자씨 모임 활동이 저조한 까닭은 교인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겨자씨 편성에 반영되지 않거나 참여할 기회가 적었고, 출석교인 중에 미등록교인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그 이유를 진단하는 조정현 목사는 곧 겨자씨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사역이 예정되어 있음을 귀띔했다. “2011년 하반기부터 2013년에 걸쳐 ‘겨자씨 배가 운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급격하게 겨자씨를 활성화하려다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전례를 참고하여, 이번에는 점진적이며 단

계별로 진행한다. 전단계로 올해 10월 9일부터 2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 불신자와 새가족, 미등록 교인을 등록하게 하여 겨자씨로 인도하고, 1단계로 2012년 상반기까지 새 겨자씨 인도자를 훈련하여 현 210명의 2배인 400명 규모로 양육할 예정이다. 2012년 하반기에는 양육된 인도자를 중심으로 기존 겨자씨를 분할하여 400개로 늘이는 2단계가 진행되고, 2013년에는 겨자씨 참여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전 교인이 겨자씨에 참여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겨자씨 공동체는 교인간의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가족 공동체로 기능할 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섬김 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겨자씨에서 바자회와 각종 사역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로 연결되고, 겨자씨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해외의 공동체로도 확산되는 것이지요.” 준비 작업에 여념이 없는 조정현 목사의 말이다.

예수친구 사역과 은사 사역

겨자씨 활동 외에도 주님의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려는 노력은 다양하다. 우선 언약과 예배를 함께 하는 신앙공동체로 키우기 위한 예수친구 사역을 들 수 있다. 2009년 시작한 예수친구 사역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요 15:15)라는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현재 뿌리기수 6명이 2단계를, 1기수 6팀 61명이 1단계를 이수하고 있다. 이 사역을 통해 양육된 리더 한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6명씩 양육하게 되면, 몇 년 안에 우리 교인은 모두 진정한 예수의 친구이자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는 교인들이 많음에도, 주님이 주신 재능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길 기회를 미처 만나지 못한 경우가 많다. 2010년에 구성된 은사 사역팀은

< 2면에 계속... >

주간 목회력

<모주왔_ 10월 감사행사안내>

-쌀 나눔 행사 : 10.16~23
-모주왔 축제: 전시(10.16~30) / 공연(10.19)
-북한선교바자회 : 10.22(토) 오전10시~오후3시

<평양노회 100주년 음악회>

-10.16 오후7시 / 대예배실

<성인입교 및 세계교육>

-9.25~10.23 (매주) 오후1:30~3:00

<코스타리카비전트립>

-10.22(토) ~30(주일)

<신화식 목사 부임예배>

-10.23(주일) 오후4시반 / 동해청운교회



소제로 드리는 감사의 삶

_담임목사 박원호

하나님,

이제 나는 기도를 삶의 능력이 되게 하겠습니까.

고운 가락에 기쁨을 부어,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소망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수고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파하고,

내가 가진 건장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파하고,

내가 가진 달란트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삶이 급게 갈아 기름을 바르고 향을 뿌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

기도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받으셔서,

급게 갈아 기름을 바르고 향을 뿌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삶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삶은 구원의 은총으로 새롭게 된 삶이요,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을 가진 삶입니다.

결코 나를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바라보며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에 누락을 쓰지 않겠습니다.

이 삶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는 기도함으로,

항상 기쁨의 삶을 살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진실함을 닮아,

거짓의 누락을 버릴 것이며,

이제는 삶을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받으셔서,

급게 갈아 기름을 바르고 향을 뿌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

추함의 누락을 버릴 것이며,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부족한 것 뿐이요 비천한 것 뿐이지만,

그러나 정성껏 갈고 갈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고운 가락이 되겠습니다.

나아가,

이제 저의 삶은 사명의 삶이 될 것입니다.

고운 가락에 기쁨을 부고,

그리고 향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청결함을 닮아,

변질과 거짓을 버릴 것입니다.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저의 삶을 받으셔서,

급게 갈아 기름을 바르고 향을 뿌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곡물과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질 때,

지극히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헌신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받으셔서,

급게 갈아 기름을 바르고 향을 뿌려,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가진 것들을,

향기롭게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파하고,



< 1면에 이어서... >

각자의 달란트를 발굴하여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 기쁨을 갖도록 진행하는 사역을 맡고 있다. 2012년부터는 은사 사역팀 주도로, 겨자씨 모임 가운데에서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굴하고, 사역 박람회를 통해 필요한 곳에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기회를 나누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한 생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사업체 정보를 공유하는 제안이 연구 검토되고 있기도 하다. 나눔

과 섬김을 통해 교인간의 상부상조를 돕고, 지속적이며 건강한 코이노니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

예수친구사역을 통한 전 교인의 제자화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겨자씨모임의 활성화로 모든 교인이 한 가족으로 서로를 아끼게 되는 가족 공동체로 거듭나며, 시간

과 재능을 십일조의 정신으로 같이 나누는 생활 공동체로 삶을 공유할 때, 주님의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세상을 섬기는 진정한 ‘알곡 공동체’의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내적인 영성, 외적인 사역, 그리고 사랑과 책임 있는 공동체에 중점을 둔, 작지만 고도로 헌신되고 훈련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든 코스비 목사의 말이다.

< 편집부 >



교육목회원 <아름드리_소년부>

“기도로 대화하며 하나님과 친구 되는 소년부”

매 주일 아침이면 3층 밀알실에서 소년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소년부는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한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소년부가 감당해야 사명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년부는 2011년 교육표어를 ‘기도로 대화하며 하나님과 친구 되자!’로 삼고, 아이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친구가 되어 대화하는 소년부가 되어가기를 소망하며 교육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소년부 예배시간 및 활동

교육목회원 소년부 예배는 매주일 2차례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시간은 1부는 9:30~10:40, 2부는 11:30~12:40입니다. 매주 예배 후 소년부 친구들은 각반 담임선생님과 함께 예배시간 설교 본문에 맞게 성경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배시간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짚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는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한 달에 한번, 찬양예배



또는 특별예배를 통해 에너지 넘치는 소년부 친구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활기찬 소년부 예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찬양 선생님 지도하에 1부는 워십찬양팀, 2부는 예배찬양대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찬양대는 소년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찬양훈련과 영성 훈련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중에는 소년부 카페 (<http://cafe.daum.net/junimangels>)를 통해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간의 대화의 장과 기도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게시판을 통해 소년부 친구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의 간증을 올리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솔직한 나눔을 통해 소년부의 따뜻함이 온라 인상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땅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소년부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방윤주 전도사 _ pepsiba@hanmail.net >

2011 가을 학기 교사 대학 개강

주님의교회 2011년 가을학기 교사 대학이 10월 9일 오후 3시 30분 교회 중예배실에서 개강했다. 교사 대학은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진행되며, 봄학기 강좌는 지난 3월 20일과 27일에 개강한 바 있다. 올해 슬로건인 ‘기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 주는 중요한 사역이다.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에는 아기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와나 커비, 어와나 불티, 어와나 티앤티, 중등부, 고등부 등 12개 부서에 교역자 15명, 교사 424명이 사역하고 있다.

“영적 열매 맺는 주님의교회 교사 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 가을 교사 대학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는 말씀에 따라 진행되었다.

10월 9일 첫날 프로그램은 최성기 전도사의 찬양 인도와 엄주청 장로의 기도로 시작했으며, 박원호 담임목사가 ‘교육목회의 비전’에 대해 강의했다. 기독교 교육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교육이며, 공동체 교육이 가능한 열린 환경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목회와 교육이 분리되어 인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목회와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교회 교육의 핵심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주빌리 김옥순 대표의 ‘영적 전쟁과 교사’라는 제목의 강의를 이어졌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탁주호 목사), ‘연령별 교안 만들기’, 3주차인 10월 23일에는 ‘코치로서의 목사’(문재진 목사), 반목회 및 기도회(권대선 목사)가 진행되며, 애찬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 김희영 기자 _ hykim62@gmail.com >

교회 교육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좋은 강의였다. 사교육의 폐해, 공교육의 붕괴, 가정의 붕괴, 사회문제의 대두 등 오늘날의 교육이 보여주는 여러 문제점들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관점을 기준으로 성품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다.

특히 경청, 순종, 감사가 교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성품임을 강조했다.

가을학기 교사 대학은 첫날에 이어, 2주차인 10월 16일에는

2011년 주님의교회 항존직선거 결과보고

- 일시: 2011. 10. 2 (08:30~15:00) / 10. 9 (08:30~15:30)
- 장소: 정신여자중학교 본관
- 총투표자수: 1,295명 (1차) / 1,112명 (2차)
- 유효투표수: - 장 로 1,248표 (1차) / 1,098표 (2차)
- 권 사 1,271표 (1차) / 1,081표 (2차)
- 안수집사 1,287표 (1차) / 1,034표 (2차)

— 장 로 —



지유철



손천숙



김유호



동현수



김학원

< 5 명 >

— 권 사 —



김혜숙



조혜조



김라마



남택숙



박서경



최정숙



이덕례



김분자



박향숙



김용숙



문유숙



김미혜



한경임



방순희



김경미



김미자



임연옥



박경숙



송용미



성순현

< 20 명 >

— 안수집사 —



원재환



전석식



신현채



이한성



김봉곤



최종현



김진수



권성호



여인묵



최병욱



정상철



서정하



태재승



이흥모



김중호



김유석



최호성



박석진

< 18 명 >

2011년 항존직 선거관리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김창안 장로, 위원으로 박대길 장로, 최종명 장로, 그리고 배현성 목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반노리 단노리

화장실 티슈걸이가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휴지 한 장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물자를 너무 쉽게 낭비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몸에 배어진 습관이 스스로에게 정착되어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습관적 절약을 이행하면 남겨진 휴지 한 장도 많은 용도로 다양하게 쓰기도 남지요.

